

보도해명자료

('16.7.2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주한 美 부대사, 산업부 차관 찾아간 까닭은...

('16.7.20. 문화일보)

1. 기사내용

- 산업부 관계자들은 '단순 예방(방문)'이라고 했지만 예상만큼은 아니었다. '오비이락(鳥飛梨落)'일수도 있지만,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통신 칩셋 업체인 퀄컴의 특허 남용 혐의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미묘하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우태희 차관과 美 부대사의 오찬(7.18)은 예방(Courtesy Call)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기사에서 언급한 특정기업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음.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김기준 과장 (044-203-5650)
유의택 사무관 (044-203-5654)